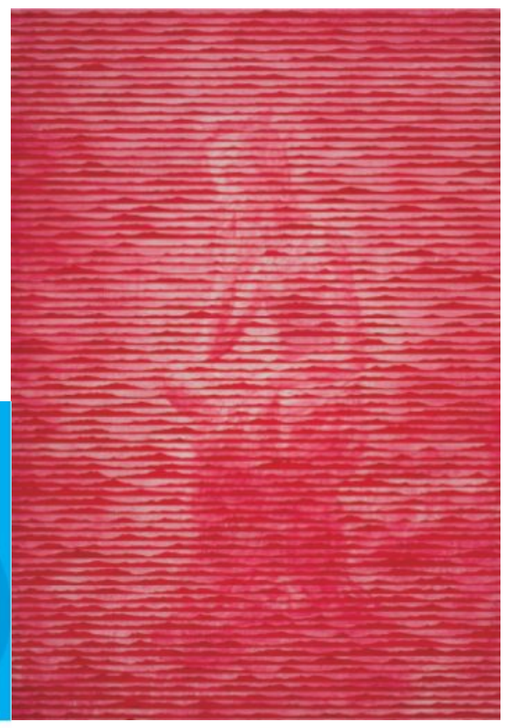
전환의 길에 선 오월, 희망의 새 빛과 함께 걷다

31일까지 '오월미술제' 13개 전시…14일 미로센터서 포럼
오월전·거리미술전·청년미술전과 지역 갤러리 '연대전시'

김병택 작 '사유-해원'



오월미술제

해마다 5월이면 열리는 '오월미술제'는 5월 광주 정신과 함께 '시대'에 대한 발언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생존을 저해하는 기후 위기 등 올해 역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올해 5월, 작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건넬까. 오월미술제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회장 김병택·최재덕, 이하 광주민미협)가 주관하는 오월미술제가 광주 전역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전환의 길에 선 오월, 희망의 새 빛과 함께 걷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오월미술제(총감독 이현남)는 광주민미협의 제34회 오월전, 거리미술전, 청년미술전과 함께 '연대전시'로 광주 갤러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10개 전시를 포함해 모두 13개 전시로 구성돼 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작가 토크, 오월길 걷기 프로그램,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월미술포럼 등도 개최한다.

최대주 작 '자연인'

민미협이 개최하는 '오월전'은 13일부터 25일까지 은암미술관과 무등갤러리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환 : The Way & Hope'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역사적 과거에 대한 통찰과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현재를 가늠해 보는 기획이다. 참여작가들은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형식 실험을 통해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에는 광주 작가를 비롯해 부산, 서울, 울산, 제주 등 국내와 미국 작가들도 함께 했다. 참여작가는 김화순·김신윤주·김병택·김우성·바다·위재환·이사범·정희승·김자옥·미술행동프리즘·에이미 바신 등 25명(팀)이다.

'호명(呼名) 5·18거리 미술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 주변과 금남로에서 열리는 거리전이다. 1980~90년대 거리미술전이 시민들과 함께 하며 이상을 공유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오월 대동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기획이다. 박태규·김영만·이관수·이상호·장경철·오월어머니집·류기정 등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양림미술관에서 열리는 '안녕하세요 80학번 000입니다'(17일~29일)는 청년 큐레이터들이 기획한 전시다.

김유진·김지우·최연지·하은우 등 4명의 청년 기획자가 협업한 전시로 5·18을 겪지 않은 MZ세대의 시선을 만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은 설치회화, 조각, 인터렉티브 미디어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객참여형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건넨다. 참여작가는 김유나·김은경·나지수·노여운·윤연우·이뿌리·하승완·백지유&안다민 작가다.

'오월의 오감'에서는 1980년 5월 당시의 현장을 시간 순서대로 4가지 주요 사건과 공간을 작가들이 재구성하며 '위 플레이'에서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으로부터 관객이 교감을 이루는 순간까지의 여정을 담아낸다.

광주 지역 갤러리와 기획자들의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연대전시도 눈길을 끈다.

갤러리 생각 상자의 홍성민 초대전 '숨', 메이홀 10주년 기념 이상호 초대전 '눈 감고, 눈 뜬 오월의 사람들', 북구문화센터 이기원 특별초대전 '빈들에 스민 봄날', 비움 박물관 특별기획전 '꽃이 된 광주사람들', 오월미술관 특별기획전 '퇴행_꿈꾸는 자들의 발화', 전일빌딩 245 5·18기념 공간 '오월 어머니 그 트라우마', 전일빌딩245 3층 시민갤러리의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기획 'Connected Spot(연결된 지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화운동 아사히신문사 미공개 컬렉션 특별전',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전진하는 오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 제3회 예술 만장전 '스스로 오월이 된 사람들' 등이다.

오월 포럼은 '오월 정신과 예술가의 상상력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14일 오후 2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전승일(작가)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예술적 기억과 성찰', 김종길(미술평론가)의 '아시아 미학의 뿌리 구조와 우물신화의 상상력-오월 사건의 인문적 특이점과 전복적 사유', 신용철(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의 '출렁 일렁 꿈틀거리는 민중미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작가와 기획자 6명의 작업세계를 이야기를 통해 들어볼 수 있는 작가토크(21일 오후 2시)도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그밖에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하나의 마음 '어셈블리 Assembly 5·18 '도 진행된다. QR코드에 접속해 5·18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글과 그림 등으로 온라인에 기록해 볼 수 있는 기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뷰폴리'에서 듣는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비엔날레재단, 13~14일 '광주폴리 x 로컬가락'
ACC 미디어월서 중계…아마도이자람밴드 등 공연

'뷰폴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지난 2월부터 광주 폴리 리뉴얼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 첫번째 프로젝트로 음식을 통해 광주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광주폴리x로컬식경:콩과 들깨'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음악을 통해 도시를 감각하는 프로젝트 '광주폴리 x 로컬가락(歌樂): 내력 없는 소리'를 13~14일 광주 뷰폴리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한다. 재단이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업무 협약을 추진한 후 처음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협업했다.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뷰폴리'

부제는 황망한 사건을 당했을 때 터져나오는 전라도 말 '내력 없는 소리하고 있네'에서 따왔다. 5·18과 세월호 등 현대사의 비극적인 순간을 환기함과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들, 실험적 음악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4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음악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공연 축제로 구성됐다.

13일(오후 1시30분~5시 광주독립영화관) 열리는 라운드테이블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여자들'이 주제다. 임태훈 조선대 교수가 1980년대 문화운동의 의미를 점검하는 '국가와 광장, 충돌하는 사운드스케이프의 문화사' 기조 강연을 하며 1982년 '임을 위한 행진곡' 앨범 제작에 참여한 임영희·임희숙(당시 극단 광대 및 갈릴리 문화패), 김은경(당시 한신대 대학생)의 공개 구술 토크가 마련된다. 토크는 이후 구술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14일 공연은 뷰폴리에서 오후 4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공연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수록된 1982년 최초 버전의 앨범 '넋풀이'(35분 27초) 전곡을 감상한 이후 시작된다. 이 앨범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곡을 감상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참여 음악인은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 박지하, 아마도이자람밴드, 단편선, 김오키, Mogwaa, 박다함 등이다. 사전 예약 50명과 현장 참여 20명이 함께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에서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또 현장에서는 독립서점인 '책과생활'과 '파종모종', 광주 로컬기업 '찬찬히 방앗간' 등이 도서와 LP, 맥주·주먹밥 등을 판매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발레와 미디어아트로 '어린왕자' 만나요

그린발레단, 14일 광산문예회관

광주 그린발레단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 발레 '어린왕자'를 연기한다.〈사진〉

이 작품은 생택쥐페리의 원작 동화 '어린왕자'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왕자가 각 행성을 돌아다니며 친구를 만나 겪는 이야기를 발레와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다.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린발레단은 이번 작품에서도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와 호흡을 맞췄다. 발레가 지닌 공간의 한계성을 넘어서고자 뭉친 이들의 협업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린발레단은 지난해 8월 '어린왕자'를 초연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이지 못했다. 이에 올해 안무와 미디어아트 등 전면 보완을 거쳐 다시 관객들을 찾아간다.

인트로와 7개의 장으로 이어지는 이 작품은 발레 특유의 형식미를 보여주는 왈츠 군무와 폴댄스 등 어린왕자의 여정을 함께하며 다양한 캐릭터들의 춤과 익살스러운 마임을 감상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는 동화 어린왕자 문구처럼 관객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 있는 공연으로 70분 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조가영 그린발레단 대표가 안무와 연출을 맡았으며 어린왕자 역에 나경렬, 장미역 조성미, 여우역에 러시아 출신 벨릭테 노르보예프 등 16명이 출연한다. 아울러 이번 무대에는 박승유가 지휘를 맡은 K아트 오케스트라가 생생하고 웅장한 음악을 들려준다.

VIP석 1만 5000원, R 석 1만원. 문의 062-223-0658.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작가회의, 전국청소년 백일장 개최…27일 예심 마감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윤정모)가 제28회 전국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백일장은 예심을 거쳐 선발된 약 30여 명의 청소년(17세 이상 20세 미만·대학생 제외)이 본심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예심은 운문(해당 글감 2편)과 산문(해당 글감 1편) 두 부문으로 진행되며 마감은 오는 27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접수는 우편(03965,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5층 한국작가회의)으로 해야 하며 결과는 오는 6월 3일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한다.

본심은 6월 18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오후 1시에 열리며 지정 글감으로 운문 1편, 산문 1편을 작성한다. 자세한 일정은 예심통과자에게 개별 연락.

시상은 장원은 1명 상금 50만원, 차상 부문별 1명 상금 20만원, 차하 부문별 3명 상금 10만원, 입선 부문별 10명 부상이며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문의 hanjak1118@hanmail.net 또는 02-313-148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누리와 함께해5' 이벤트…31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광주문화재단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문화누리와 함께해5'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55명에게 BHC후라이드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 채널추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채널에 성명과 연락처, 문화누리카드와 결제영수증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당첨 발표는 오는 6월 8일 개별 문자 발송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체육, 관광 등을 지원하는 문화 복지카드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하다.

한편 올해 참여 가맹점은 광주문화누리 블로그와 SNS채널을 통한 가맹점 이벤트 및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44. /박성천 기자 skypark@